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얼음 깨기

다시 걷고 싶은 길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따스하게 남아있는 길이 있나요?
다시 걷고 싶은 길이 있다면 어디가 생각나는지요?

1. 다시 걷고 싶은 길은?

2.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교회행사

11월

1,4일	성례교육
5일	성례식
12일	성찬식
19일	추수감사주일/찬양축제
25일	결혼예비학교 시작

12월

10일	목장 방학 / 어와나 종강
24일	성탄전야
25일	성탄
31일	송구영신예배

경배 찬양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1.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x 2)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2.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x 2)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선교

[곽미정 선교사]

기니비사우

- 매 주마다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 말라리아의 위기에서 우리 아이들 모두 무사할 수 있도록
- 영어 캠프를 통해서 모슬렘 아이들 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소식

1. **성찬식** 다음 주일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2. **모집** 캄보디아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 : 2024년 2월17일(토) ~ 23일(금)
10월 28일까지만 신청 받습니다. (문의 : 이학엽강도사 010-6730-7517)

3. **사경회 은혜 나눔** 더말씀으로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한문장 큰 울림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1874-1917)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 개인의 어려움들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 전 인류 안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재앙, 재난 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은 이와 같은 ‘까닭 없는 고난’을 가장 극심하게 당했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던 욥은 10명의 자녀와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천상회의 이후에,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에 있던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겨버립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 종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잃게 됩니다.

1_고통의 본질 - 보호받음에서 유기됨

이제 두번째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사탄은 이제 소유물 뿐만 아니라, 욥의 뼈와 살을 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탄은 그의 모든 소유 뿐만 아니라, 살과 뼈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려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욥 자신, 가정, 집, 소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허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서 ‘욥의 세계’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받음으로부터의 유기됨, 울타리의 무너짐으로 인한 무질서, 괴로움이 욥의 고통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느끼고 있나요?

[나눔] 나에게 있었던 / 있는 고난의 상황은 무엇이 있나요? 그 때에 느꼈던 어려운 마음이나 감정이 있나요?

2_반성적 지혜 vs 규범적 지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과 욥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징벌(신명기 28:35)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욥에게 마침내 종기는 가려움을 넘어 서서, 피부가 썩어가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기왓조각으로 긁고 있던 욥에게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1:1)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공식으로,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두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 -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원리와 규칙이 있음. (잠언 / 예 : 봄-여름, 인과응보)

반성적 지혜 - 세상 모든 것을 몇 가지 규범적 지혜로 다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 (욥, 전도서 / 예 :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은 반성적 지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 => 고통과 어려움] (X) [까닭을 알 수 없음 (욥의 입장) => 고통과 어려움] (O)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며, 그 지혜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여, 나의 식의 비난. 해답을 성급히 내는 일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나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두 측면을 통해, 느끼거나 배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반성]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해답을 제시하려 했던 태도가 혹시 있었는지 반성해 봅시다.

3_재앙 속에 변함 없는 욥의 태도

욥에게 덮친 재앙의 마지막은 아내의 비난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도 담담한 욥을 향해,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라고 울분을 토합니다.

사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욥 자신이었습니다. 소유, 자녀, 건강, 관계, 아내의 울타리가 철저히 무너진 그 극심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의 태도로 나아갑니다.

[나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나요?
[돌아보기]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눔 주일 말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 욥기 2:7-10]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고통의 본질	내가 만든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에 있음을 내가 봅니다.
반성적 지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변함 없는 욥의 태도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로 그 태도로 나아가겠습니다.